

KIAT, '5극3특' 지역산업 맞춤 육성

민병주 원장 “기업지원 설계 때 초광역권 최대한 고려할 방침”

규제·인재·재정·금융·R&D '5종세트' 포함 육성계획 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현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을 축으로 지역별 산업 생태계 맞춤 육성에 나선다. 기술개발, 인재양성, 금융지원 까지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초광역권 중심으로 묶어 지역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극3특 기반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지역 산업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지원 사업 전반을 설계할 때 초광역권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극3특은 서남·중부·대경·동남·수도권의 5대 권역과 강원·전북·제주의 3대 특별지역을 아우르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KIAT는 지역 기업 대상 기술개발(R&D) 지원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시·도 단위 사업 구조를 5극3특 초광역권 체제로 재편한다.

그간 14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되던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초광역권 중심으로 통합되며, 예산도 2025년 512억 원에서 2026년 841억 원으로 64% 확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된다. 과제 기획 단계에서 지역 자율성은 높이고, 대형 사업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키운 것이 특징이다.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역에 투자하는 이전·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R&D 사업(42억 원)도 새로 추진한다. 중견(후보)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플러스, 상생형 협력 R&D 사업도 지역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5극3특 기반으로 예산 배분을 조정한다.

특히 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전체 예산의 최소 60%(150억 원)를 배정해, 초광역권 산업 생태계의 '앵커 기업'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초광역권 내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사업도 전년 40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KIAT는 탄소중립 분야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7억 원)을 신설하고,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100명을 지역 기업 인턴십으로 연계하는 사업(30억 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방 투자기업의 조기 가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콘크리트' 사업(14억 원)도 추진된다. 재직자 대상 첨단산업 아카데미(180억 원)는 교육 거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6곳을 추가 선정하는 특성화대학원(180억 원)과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인 부트캠프(41개 추가 선정, 584억 원)를 선정할 때도 5극3특 성장엔진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제조기업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보조금 사업(1000억 원)과 기술개발 자금 융자(900억 원)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 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사업(100억 원)도 1분기 중 시작된다. 특히 여수·포항·서산·광양 등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은 151억 원으로, 전년(11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된다.

KIAT는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인재·재정·금융·R&D를 아우르는 범부처 '5종 세트'를 포함한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2조 투입

첨단전략산업·고부가치화 등 지원 소재개발 분야에 AI 첫 활용 계획도

▲소재 개발과 AI 연계 지원에 초점 맞췄다.

우선 철강·석유화학 분야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초심도 시추환경용 초내부식 강관 소재, 초저온·고강도 특수강, 빙산·발전용 핵심 구조부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이차전지용 초박막 폴리프로필렌(PP) 필름, 전장부품용 초고순도 PP 등 스페셜티 화학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과제로는 65개 과제에 427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AI 반도체용 초고순도 구리(Cu) 소재, 페지컬 AI 디바이스용 유리기판 소재·부품, 제련 부산물을 활용한 회소금속 정련 기술 개발 등이 대상이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소재 개발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소재 AI 연계 과제'를 도입한다. 공공연구소 소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가상공학 플랫폼과 연계해 특성 예측, 구조 최적화, 가상설계·시뮬레이션 등 AI 기반 디자인 소재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유통·소비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산업부, 3년간 국비 471억 투입
국내 온라인 역직구 운영 역량 강화

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매년 해외 진출 유동기업 8곳과 역직구 관련 기업 5곳을 선정해 해외 현지조사, 마케팅, 물류 등을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 기업과 소비재 기업이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 상호 '원원' 성장을 유도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역직구 지원도 강화한다. 역직구 시장 규모는 2020년 11억 9000만 달러에서 2024년 29억 달러로 143% 성장한 만큼, 국내 역직구 플랫폼의 현지화와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몰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류 홍보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역전기요금제도로 국가균형발전 기여

기후부, 올해 1분기 개편 추진 계획
기업 지방이동 유인하고 도움 제공



있도록, 또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보려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을 많이 이용하도록 발전량이 많은 낮요금을 내리고 저녁과 밤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폐합 관련해서는 4, 5월 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고 했다. 두 세 개의 경로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를 약속했는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 시한과 일치한다"며 "공기업 영역에서 발전5사를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지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경로가 압축되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12차 전기본에 담을 계획이다. 발전노조에서 '한 곳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5사는 비슷비슷한 사업하고 있다"며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지, (하나로)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게 효과적일지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발전5사가 각각 양수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양수발전을 전담하는 발전 공기업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양수 발전은 발전5사가 할 수도 있고 한수원이 할 수도 있고 수자원 공사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기후부가 총괄하면서 각자 용이하게 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예정

주 3일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해야

본소득 수령을 위해선 이 같은 실거주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

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됐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한다. 또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K-푸드' 알린다

농식품부-aT, 시내 트램 래핑 광고 푸드마켓서 K-푸드 팝업 바 운영도